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허묘연, 옥 정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n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Considered with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Myo-yeon Huh, Jeung Ok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on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Methods: A total of 1919 middle school students (males 968, females 951) were selected from the first and second data sets of the 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t*-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WIN 18.0.

Results: Of the parenting behaviors, high monitoring, affection, and reasoning were associated with lower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of their adolescent offsprings, whereas inconsistency, intrusiveness, and over-expectation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adolescent. In males,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were significant between reasoning and attention problems and between affection and aggression. However, in females, they were significant when parental monitoring, inconsistency, and reasoning affected attention problems.

Conclusions: Peer attach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aggressive behaviors of male adolescents. This finding should be considered in preventing violence in schools.

Korean J Health Promot 2013;13(3):116-123

Keywords: Parenting, Peer attachment, Behavioral problems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심리 사회적 성숙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전 생애 중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며 다양한 정서문제행동이 나타나는 시기

이기도 하다.¹⁾ 청소년기의 균형 있는 발달과 성장을 기반으로 한 적응을 위해서는 가족 내 지지와 더불어 확장된 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필요로 한다. 가족은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관계의 기본적인 정서적 기반을 제공하며,²⁾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한다.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 독립요구의 증가, 외부 세상에 대한 호기심 증가 등으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부모에 의존해 있는 상태로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기 정서행동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³⁾

부모자녀관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부모의 양육행동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나

■ Received : October 26, 2013 ■ Accepted : September 3, 2013

■ Corresponding author : Jeung Ok, Ph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60, Solmae-ro 49-gil, Gangbuk-gu, Seoul 142-700, Korea
Tel: +82-2-944-5035, Fax: +82-2-982-4810
E-mail: oj256@iscu.ac.kr

타나는 태도나 행동을 의미한다.⁴⁾ 실제 부모가 보고하는 양육행동보다는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청소년의 발달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⁵⁾ 긍정적 양육행동인 부모의 애정과 감독은 청소년기 공격성, 외현화 문제행동을 낮추는 요인이며,^{4,6,7)} 내재화 문제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였다.⁸⁻¹¹⁾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반대의 결과로 부모의 과잉간섭이나 과잉보호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화 등의 내재화 문제뿐 아니라 공격성,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과도 정적 관계를 보였고, 적대적이고 과잉통제적 양육행동은 공격성 발달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다.^{4,7,12)}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¹³⁾ 부정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은 남녀 청소년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높이지만, 긍정적으로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 중 부모의 감독과 애정은 남자청소년의 공격성을 저하시키지만, 여자청소년의 공격성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거나 비행행동을 약간 저하시키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효과에 그치고 있다.^{14,15)} 또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부모의 과잉기대를 더 크게 지각하고, 공격성과 관련되어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부모의 과잉기대,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과잉기대가 관계적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¹⁶⁾

한편 청소년기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때 애착대상으로 또래를 활용하기 시작하고 또래는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는 존재로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한다. 이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¹⁾ 또래관계를 애착의 관점에서 조명한 또래애착은 또래에 대해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를 의미한다.¹⁷⁾ 또래애착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지지의 원천이나 부모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¹⁸⁾ 또래관계가 부모관계와 같은 대등하게 중요한 지지원이라는 연구결과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17,19)}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등 청소년의 적응을 예측하는 유용한 요인이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해 사회적 부적응이 초래될 때 청소년기 적응을 위한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다.^{20,21)} 즉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위축, 신체증상,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행동을 낮게 보고하였고,^{11,17,21-23)} 내재화 문제를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9,24,25)} 한편 또래에 의해 거부된 청소년들은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고하였다.²⁶⁾

기존의 청소년기 적응과 연관된 다수의 선행연구 대부분이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또래애착 각각에 한정되어 영향력을 탐색하거나, 또는 두 변인을 대등하게 두고 상대적

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어 왔다. 이는 발달의 경로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발달초기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더하여, 과도기인 청소년기에는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급증하는 발달적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청소년기 또래애착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청소년기 적응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이 청소년기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관계에서 또래애착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토하고자 하며,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성별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남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한다.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수집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2010년 1차년도와 2011년 2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행동과 또래애착 변인을, 2차년도 연구자료에서는 종속변인인 정서행동문제 변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차년도에 수집된 총 2,351명의 자료 중 연락두절 및 거절 등의 사유로 2차년도 응답자는 2,280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응답과 무성의한 답변이 포함된 자료를 제외하여, 남학생 968명, 여학생 951명으로 총 1,91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

지각된 부모 양육행동은 Huh⁴⁾가 제작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총 43문항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감독, 양육,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의 6개의 하위척도로 분류되고, 각각 3문항, 4문항, 3문항, 4문항, 4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0.76, 0.82, 0.61, 0.71, 0.64, 0.74였다.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이며, 애정은 언어적/비언어적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를 존중·수용해주고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비밀관성은 훈육 기준에 일관성 없는 태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이거나 기분 내키는 대로 자녀를 대하는 행동을 말하며, 과잉기대는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 성취에 열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관여하고 간섭하는 태도이며, 합리적 설명은 자녀의 행동을 지도할 때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일관적이며 애정적으로 주장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태도를 의미한다.

2)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Armsden과 Greenberg²⁷⁾가 제작한 애착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 25문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의사소통, 신뢰, 소외의 3가지 하위요인별 3문항씩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은 4점 척도로 하위척도별 신뢰도(Cronbach's α)는 의사소통 0.76, 신뢰 0.76, 소외 0.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3개 하위 영역의 점수를 의사소통과 신뢰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의 경우 점수가 낮을수록 안정적인 또래애착으로 역점수화하여 합산한 또래애착 총점으로 분석하였다.

3) 정서행동문제

정서행동문제 척도는 주의집중 어려움,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4점 척도로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채점되었다. 주의집중 어려움, 공격성, 신체증상은 Cho와 Lim²⁸⁾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평정척도에서 각각 주의집중 7문항, 공격성 6문항, 신체증상 8문항으로 구성되며 신뢰도(Cronbach's α)는 각각 0.82, 0.79, 0.86이었다. 사회적 위축은 Kim과 Kim²⁹⁾이 개발한 척도에서 수정된 5문항을 사용하였고, 신뢰도(Cronbach's α)는 0.85였다. 우울은 간이정신진단검사³⁰⁾의 우울척도 중 일부를 수정한 10문항으로, 신뢰도(Cronbach's α)는 0.91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

과 표준편차를 전체표본과 남녀 청소년 집단에 대하여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각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지각된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때 주효과가 유의한 하위영역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변인들은 센터링하고 센터링한 변인들을 서로 곱하여 상호작용항을 만들었다.

결 과

1. 기술통계치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분석에 앞서 측정 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성별로 나누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모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중 감독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지각하는 반면,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은 남자청소년이 더 높게 지각하였다. 또래애착의 경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안정적인 또래애착을 보고하였다. 정서행동문제에서는 신체증상과 우울에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높게 보고하였으나, 나머지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부모 양육행동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주효과

부모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기 위해 성별로 나누어 상관분석 후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감독, 애정,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의 부모 양육행동의 하위요인 모두 주의집중 어려움, 공격성, 신체증상, 사회적 위축, 우울 등의 정서행동문제에 대해 유의한 주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은 신체증상과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비밀관성은 사회적 위축에 대하여, 합리적 설명의 경우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서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부모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부모 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주효과가 유의미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gender differences of parenting behaviors, peer attachment and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Variables	Total (N=1919)		Male (N=968)		Female (N=951)		<i>t</i>
	mean	SD	mean	SD	mean	SD	
Parenting behavior							
Monitoring	3.15	0.65	3.12	0.67	3.18	0.63	-2.20 ^a
Affection	3.00	0.65	3.03	0.64	2.98	0.66	-1.94
Inconsistency	2.33	0.68	2.40	0.67	2.26	0.68	4.55 ^b
Over-expectation	2.62	0.66	2.72	0.64	2.51	0.66	6.96 ^b
Intrusiveness	2.41	0.63	2.52	0.61	2.29	0.62	7.84 ^b
Reasoning	2.82	0.66	2.88	0.66	2.76	0.66	3.80 ^b
Peer attachment	2.96	0.49	2.90	0.51	3.02	0.46	-5.13 ^b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Attention problem	2.39	0.53	2.41	0.54	2.37	0.52	1.46
Aggression	2.13	0.57	2.11	0.57	2.16	0.57	-1.92
Somatic symptom	2.03	0.62	1.98	0.60	2.08	0.64	-3.60 ^b
Social inhibition	2.24	0.69	2.23	0.70	2.25	0.69	-0.60
Depression	1.94	0.61	1.85	0.60	2.02	0.62	-6.05 ^b

Abbreviation: SD, standard deviation.

^a*P*<0.05.^b*P*<0.001.**Table 2.**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male adolescents^a

	Attention problem			Aggression	
	Step 1 B (β)	Step 2 B (β)		Step 1 B (β)	Step 2 B (β)
Predictors			Predictors		
Reasoning (A)	-0.04 (-0.05)	-0.95 (-0.06)	Affection (A)	-0.10 ^b (-0.11)	-0.11 ^b (-0.12)
Peer Attachment (B)	-0.10 ^b (-0.10)	-0.10 ^b (-0.10)	Peer Attachment (B)	-0.04 (-0.04)	-0.05 (-0.04)
A*B		-0.09 ^c (-0.07)	A*B		-0.11 ^b (-0.09)
R ²	0.01	0.02	R ²	0.02	0.02
ΔR ²	0.01 ^b	0.01 ^c	ΔR ²	0.00	0.01 ^c
<i>F</i>	6.89 ^c	6.25 ^d	<i>F</i>	7.39 ^b	7.26 ^d

^aAssessed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b*P*<0.01.^c*P*<0.05.^d*P*<0.001.**Table 3.** Moderating effects of peer attachment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emotional behavioral problems in female adolescent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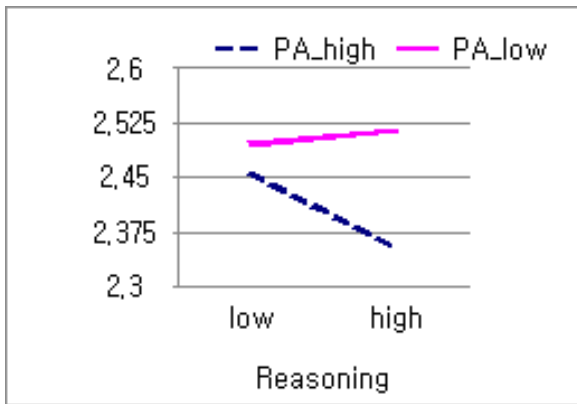
	Attention Problem							
	Step 1		Step 2		Step 1		Step 2	
Predictor	B (β)		Predictor	B (β)		Predictor	B (β)	
Monitoring (A)	-0.17 ^b	(-0.20)	Inconsistency (A)	0.10 ^b	(.13)	Affection (A)	-0.09 ^c	(-.11)
Peer Attachment (B)	-0.09 ^d	(-0.08)	Peer Attachment (B)	-0.14 ^b	(-.12)	Peer Attachment (B)	-0.13 ^c	(-.11)
A*B		-0.10 ^d	A*B		0.10 ^d	A*B		-0.14 ^c
R ²	0.06	0.061	R ²	0.04	0.041	R ²	0.03	0.04
ΔR ²	0.01 ^d	0.001 ^d	ΔR ²	0.01 ^b	0.001 ^d	ΔR ²	0.01 ^c	0.01 ^c
F	28.56 ^b	20.14 ^b	F	17.37 ^b	13.04 ^b	F	15.34 ^b	13.16 ^b

^aAssessed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b*P*<0.001.^c*P*<0.01.^d*P*<0.05.

하였던 하위요인들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의 1단계에서 예측변인으로 양육행동의 하위요인과 조절변인으로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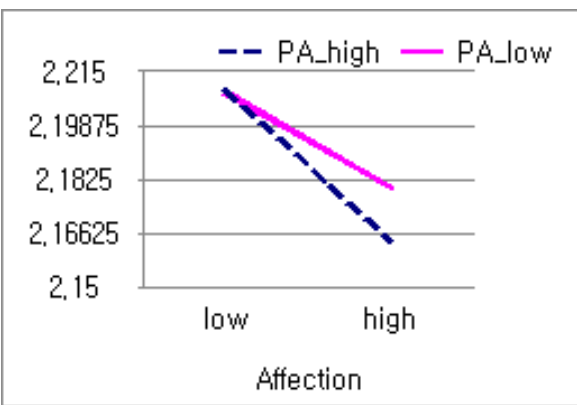
래애착을, 2단계에서는 양육행동과 또래애착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회귀계수를 나타내며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 분석하였다.

Figure 1.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reasoning and attention problem in male adolesc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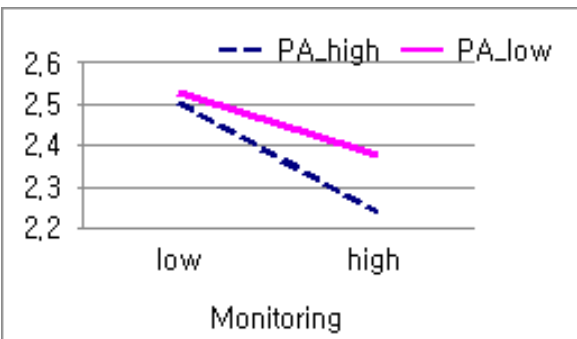
PA indicates Peer Attachment.

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affection and aggression in male adolescents



PA indicates Peer Attach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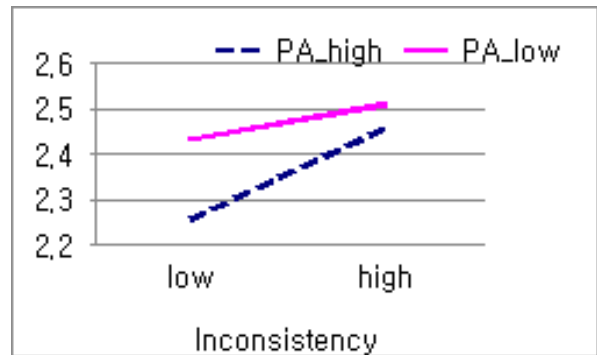
Figure 3.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monitoring and attention problem in female adolescents



PA indicates Peer Attach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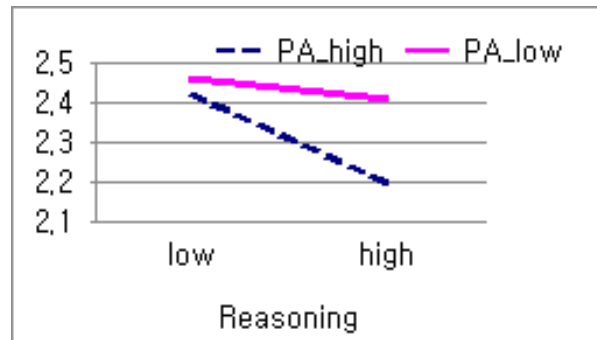
남자청소년의 경우, 합리적 설명과 주의집중 어려움과의 관계에서, 애정과 공격성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표 2). 이러한 결과가 예측한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래애착을 평균 ± 1 표준편차를 기

Figure 4.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Inconsistency and attention problem in female adolescents



PA indicates Peer Attachment.

Figure 5. Moderating effect of peer attachment between reasoning and attention problem in female adolescents



PA indicates Peer Attachment.

준으로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으로 구분하여 그래프로 작성한 결과는 그림 1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또래애착이 안정적인 남자청소년은 부모의 합리적 설명을 많이 지각할수록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감소하는 반면, 또래애착이 안정적이지 않은 남자청소년은 주의집중 어려움이 감소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애정을 많이 지각할수록 공격성 문제가 더 적게 나타나며, 또래애착이 안정적일수록 공격성 감소의 효과가 유의하게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여자청소년의 경우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는 감독,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이 주의집중 어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표 3). 즉 감독과 주의집중 어려움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고, 비밀관성과 주의집중 어려움 관계에서와 합리적 설명과 주의집중 어려움 관계도 또래애착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상호작용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 3, 그림 4, 그림 5의 그래프로 분석한 결과, 또래애착이 안정적인 여자청소년은 부모의 감독과 합리적 설명을 많이 지각할수록, 부모의 비밀관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주의집중 어려

움이 감소하는 반면, 또래애착이 안정적이지 않은 여자청소년은 부모의 감독과 합리적 설명을 많이 지각하고 비밀관성을 낮게 지각하더라도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감소하는 효과는 미미하였다.

고 찰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부모 양육행동, 또래애착, 정서행동문제의 하위척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른 부모 양육행동의 지각에 차이가 있다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부모의 감독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남자청소년은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합리적 설명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가 전통적인 남녀 역할에 따라 여아에게는 부모의 감독을 통해 보호하려는 양육행동을 강하게 보이는 반면, 남아에게는 사회적 성공을 더 기대하고 그것이 학업적 성취로 과잉기대되어 나타나며, 이를 위해 보다 더 많은 간섭을 하게 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4,3,16)} 또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더 안정적인 또래애착을 보고하고 있어, 여자청소년이 더 관계지향적이라는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7,20)} 정서행동문제에서는 여자청소년이 신체증상과 우울에서 유의하게 더 높게 보고하고 있는 것 등은 청소년기 여자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12,25)}

부모의 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토한 결과,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정서문제행동이 적었으며, 비밀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정서문제행동이 증가하였다. 이는 부모의 애정과 감독 등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부정적 양육행동은 정서적 어려움과 행동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4,7,8,10,13,21)}

부모 양육행동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남녀 성차가 나타나고 있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이 모든 정서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경향과 일치하였다. 하지만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의 신체증상이나 사회적 위축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부모의 비밀관성 역시 사회적 위축에 대해, 부모의 합리적 설명은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에 대해 유의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였다. 이는 부모의 감독은 주로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에 강한 영향력을 지니나, 신체증상이나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된다.^{4,13,14)} 또한 사회적 위축과 같은 정서문제행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보다 기질과 더 유사한 개인 내적 변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 간의 관계에서 일부 하위요인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자청소년의 경우, 합리적 설명과 주의집중 어려움 관계에서, 또한 애정과 공격성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이 안정적인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합리적 설명을 많이 지각할수록 주의집중 어려움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또래애착이 안정적이지 않은 남자청소년은 부모의 합리적 설명을 많이 지각하더라도 주의집중 어려움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또래애착이 안정적인 남자청소년은 부모의 애정을 많이 지각할수록 공격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또래애착이 불안정한 남자청소년은 부모의 애정을 많이 지각하더라도 공격성 감소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에 기반을 두고 안정적인 또래관계가 확장될 때에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특히 남자청소년의 공격성은 부모의 애정 어린 양육만으로 조절되는 변인이 아니라 안정적인 또래관계로 확장되어야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일방적인 부모의 애정을 받는 것만으로는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하므로 또래관계를 통해 일반화되어야 공격성 행동이 감소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애정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때 또래애착이 조절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측면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부모의 애정을 많이 지각하더라도 또래애착이 안정적인 경우에만 공격성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은 청소년기 또래애착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의 애정을 많이 지각한다 하더라도 또래애착이 불안정할 경우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하더라도 또래와의 관계가 불안정할 경우 공격행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남자청소년의 경우 학교 내 공격적 행동이나 또래 괴롭힘 등에 대한 개입으로 부모교육과 더불어 또래애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하겠다.

한편 여자청소년은 주의집중 어려움의 정서행동문제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또래애착이 안정적인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과 합리적 설명을 많이 지각할수록, 비밀관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주의집중 어려움이 감소하였으나, 또래애착이 불안정한 여자청소년은 부모의 감독과 합리적 설명을 많이 지각하고

비밀관성을 낮게 지각하더라도 주의집중 어려움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여자청소년의 경우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에 기반을 두되 안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때 긍정적 적응이 나타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남자청소년과 달리 여자청소년은 주의집중 어려움에 한정되어 또래 애착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데, 주의집중 어려움이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보이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정서가 자각되지 않은 초기 적응문제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자청소년 역시 청소년기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에 더하여 안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칠 때, 남자청소년은 주의집중 어려움과 공격성에서, 여자청소년은 주의집중 어려움에서만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초기 청소년기 또래애착의 영향력이 중기 청소년기 이후에 비해서는 미미하며 아직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중재하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청소년기 전반적인 정서행동문제에 대한 부모의 영향과 또래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통합적인 조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이 우울, 비행 등 특정한 발달 영역에 제한하여 연구되었던 부모 및 또래의 영향력을 다양한 정서행동문제 영역에서 함께 분석하였다. 둘째, 사회적 관계가 점차 확장되어 가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하였고 그 중심에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초기 청소년이 또래관계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발달선상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부모와 또래 영향을 1차년도에, 제반 발달영역은 2차년도에 수집함으로써 단기 종단적 연구흐름에 기반을 두고 영향력을 검토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단기종단적인 연구설계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제반 발달 및 적응 영역을 통합적으로 조망하려 하였으나 제한점도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또래와 점차 깊이 있는 애착관계를 형성해가는 전환기임을 고려할 때 1년 후 발달영역에서의 또래관계 영향력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중기와 후기 청소년기를 포함하는 보다 장기간에 걸친 적응에 부모와 또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장기 종단연구의 틀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요 약

연구배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이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자료 중 중학교 1학년 패널의 1차년도, 2차년도 자료 1,919명(남 968명, 여 951명)을 대상으로 SPSS/WIN 18.0을 사용하여 *t*-test,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첫째,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이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는 낮아지고, 비밀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가 높을수록 정서행동문제가 많이 보고되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과 정서행동문제 간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 중 합리적 설명이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또한 애정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한편 여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감독, 비밀관성, 합리적 설명의 양육행동이 주의집중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또래애착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특히 남자청소년의 공격성 행동에 또래애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학교폭력 문제의 예방 및 개입에 대한 함의가 있다 하겠다.

중심단어: 양육행동, 또래애착, 정서행동문제

참고문헌

- Oh YJ. Predictors of developmental trajectory change and clustering related to adolescent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dissertation]. Chung-J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0. Korean.
- Bang HJ. Developmental explorat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a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Korean society. Korean J Psychology 2000;6(3):41-65.
- Kordi A, Caharudin R. Parenting attitude and style and its effect on children's school achievements. International J Psychological Studies 2010;2:217-22.
- Huh MY.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s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9. Korean.
- Lee HS. Study of Academic grade differences according to parenting behaviors by middle school students [dissertation]. Daegu: Keimyung University; 2003. Korean.
- Kim ON. Parents' marital conflict, coping, mental health and behavior problem of adolescents. Korean J Human Development 2005;12(4):99-119.
- Kawabata Y, Alink LR, Tseng WL, van IJzendoorn MH, Crick NR.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associated with relational agg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 conceptu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Developmental Review 2011;31: 240-78.
- Kwon JH, Lee EH. The effects of impulsivity,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control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2006;17(1):325-52.

9. Beam MR, Gil-Rivas V, Greenberger E, Chen C.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 Youth and Adolescence* 2002;31(5):343-57.
10. Scaramella LV, Conger RD, Simons RL. Parental protective influences and gender-specific increases in adolesc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J Research on Adolescence* 1999;9(2):111-41.
11. Jwa HS, Oh SH. Gender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trajectory and predictors of internalizing problem. *J Adolescent Welfare* 2011;13(4):119-47.
12. Shin HK.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negative affectivity, alexithymia, and perceived parenting behavior to somatization in adolescents. *Korean J Clinical Psychology* 2002;21(1):171-87.
13. Lee ET, Lee EK.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ce: focused on mediating effect. *Korean J Youth Counseling* 2012;20(1):55-70.
14. Im IS. Sex difference and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ing, emotionality, and externalized behaviors in middle school students [dissertation]. Daejeon: Hannam University; 2012. Korean.
15. Pettit GS, Laird RD, Dodge KA, Bates JE, Criss MM. Antecedents and behavior-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2001;72(2):583-98.
16. Yoon EJ, Kim KY. The Mediating effect of narciss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ernal,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ver-expectation, and adolescent aggressio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010;48(8):67-76.
17. Ok J.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8. Korean.
18. Greenberg MT, Siegel JM, Leich CJ.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 Youth Adolescence* 1983;12:373-86.
19. Laible DL, Thompson RA. Mother-child discourse, attachment security, shared positive affect, and early conscienc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2000;71(5):1424-40.
20. Roh HH. The relationship of attachment,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anxiety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2008. Korean.
21. Garneski N, Diekstra R.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amily, school, and peers: relationship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adolescents. *J American Academic Child Adolescent Psychiatry* 1996;35:1657-64.
22. Kim HS. The influences of adolescent's attachment and ego-resilience on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dissertation]. Seou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5. Korean.
23. Kim SK. The effects of daily stress on psychosocial adjustment of Korean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Youth Studies* 2008;15(1):381-406.
24. Kim IS, Lee KR. Parent attachment, peer support and behavior problems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 human ecology* 2004;7(2):97-113.
25. Lee EH, Jeong SO. Ego identity as a mediator between parenting behaviors, peer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a structural equations analysis. *Studies on Korean Youth* 2006;17(2):213-39.
26. Juffer F, Stams JM, van Ijzendoorn MH. Adopted children's problem behavior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ir ego resiliency, ego control, and sociometric status. *J Psychology and Psychiatry* 2004;45(4):697-706.
27. Armsden GC, Greenberg MT.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 Youth and Adolescence* 1987;16:427-55.
28. Cho BH, Lim K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motional or behavioral problems scale. *Korean J Counseling and Psychology* 2003;15(4):729-46.
29. Kim SH, Kim KY. Development of behavior problem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ce. *J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998;16(4):155-66.
30. Kim JH, Kim KI, Won HT.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in psychiatric outpatients. *Mental Health Research* 1983;1:150-68.